

전북현대, 아시아 무대 희망 살렸다

K리그1 37라운드 광주와 홈경기서
안현범·송민규 골로 2-0으로 이겨
ACLE PO 진출권 놓고 울산과 경기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가 광주FC를 누르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희망을 되살렸다.

전북은 지난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7라운드 홈경기에서 광주를 2-0으로 이겼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던 전북은 이날 승리로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16승9무12패 승점 57점을 기록했다.

1무1패로 주축하던 광주는 이날 패배로 3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다. 16승10무11패 승점 58점으로 3위를 유지했지만 전북과 승점 차가 1점으로 좁혀졌다.

양 팀 모두 리그 종료까지 한 경기씩을 남겨둔 가운데 ACLE에 출전할 팀은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ACLE은 아시아 프로축구팀 중 최강팀들만 나서는 대회다. 한국 K-리그에서는 두 팀이 ACLE 본선으로 직행하고 한 팀이 플레이오프(PO)에 나선다. 울산현대가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포항스틸러스가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본선에 직행한다.

광주와 전북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최종전에서 피 마르는 경장을 펼치게 됐다. 최종전에서 광주는 포항을, 전북은 울산을 상대한다.

이날 경기에서는 홈팀 전북이 전반 중반 선취점을 올렸다. 전반 17분 송민규가 머리로 떨구준 공을 안현범이 헤더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안현범의 시즌 4호골이었다.

광주는 파상 공세를 펼치지만 동점골을 넣지 못했다. 전반 25분 정호연의 발리슛은 전북 김정훈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어진 토마스의 슛도 전북 수비수 홍정호 머리에 맞고 나갔다.

전북이 한 골을 더 넣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 송민규가 결정적인 기회에서 헛발질을 했지만 흰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광주 김경민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행운의 특권이 됐다. 송민규의 시즌 7호골이었다.

후반 들어 광주는 공격 숫자를 늘리며 공격에 치중했지만 끝내 전북 골문을 열지 못했다. 역습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린 전북도 골을 넣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뉴시스



지난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안현범(사진 가운데)이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이날 안현범은 시즌 4호골을 기록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정난·인력난 이중고 지방체육회, '가뭄에 단비'

전라북도체육회, 정부 부처 삭감
지방체육 지원 예산 복원·증액 '환영'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와 인력 증원 배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삭감한 지방체육 지원 예산을 복원, 증액시켰다.

이는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운덕 의원(전주갑)이 발표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 지원(45억1800만원)과 인력증원 및 적정인력 배치(41억9200만원) 등이다.

이에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체육회에 다소나마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력 확충은 연구결과에서도 필요성이 제기 돼 왔었다.

실제 '2022년 지방체육회 적정인력 산정 연구'를 보면 지방체육회의 행정인력이 적정인력 대비

65.3%의 인력난 운영중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 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방체육회 현안 예산을 설명하고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나현일 도 체육회 고문은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는 김운덕 의원과 국민의 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모든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예산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북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클린스만 감독 "손흥민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공격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토트넘)을 세계 5위 안에 드는 공격수라고 극찬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5일(한국시간) 독일 매체 키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며 "9번 역할이나 윙 포지션, 또는 센터포워드 뒤 10번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뛰어난 선수이며 세계 축구에서 공격수 중 상위 5위 안에 든다"며 "지금은 토트넘의 주장이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즐겁다"고 말했다. /뉴시스



수영 허연경, 여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

2024 국가대표 선발전 54초49
항저우 AG 54초70서 또 단축

수영 국가대표 허연경(17·방산고3)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후 약 2개월 만에 여자 자유형 100m 한국 기록을 또 새로 썼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허연경은 지난 2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 수영(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인 54초49로 우승했다.

허연경은 지난 9월26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종목 결승에서 수립한 한국 기록 54초70을 61일 만에 0.21초 단축하며 올해만 6번째 한국 기록을 작성했다.

이 기록은 여자 자유형 100m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기준기록에는



지난 2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 수영(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인 54초49로 우승했다. 사진은 허연경이 한국신기록포상금이 적혀있는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0.24초 모자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은 "연맹 자체 기준기록보다는 빨라 추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허연경은 연맹과 인터뷰에서 "전국체육대회 이후 휴식 없이 훈련을 이어가려니 아무래도 지쳐서 연습 때 100% 따라가지 못해 경기장 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가 컸는데 전날 예선에서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김효열 코치님이 저를 계속 믿어주셨고 저도 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 체육 빛낸 8개 종목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전북체육회, 전국체전·동계체전 상위 입상 종목 대상 추진
철인3종·소프트테니스·자전거·검도·바이애슬론 등
내달 4-8일 체전 포상 일한 하계올림픽 개최지 도쿄 방문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단체에 대해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 체육회가 마련한 것으로 향후에도 전북 체육을 빛낸 종목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 대상 종목단체는 올해 열린 전국체전 및 전국동계체전에서 상위 입상(1~3위)한 철인3종과 소프트테니스, 육상(필드), 자전거, 검도, 태스스포츠, 비둑, 바이애슬론 등 총 8개 종목이다.

철인3종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뉴시스

소프트테니스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을 수확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고, 다른 종목들도 선전을 펼치며 종합3위를 차지했다.

바이애슬론은 동계체전 1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고 있으며 전북 선수단이 24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체육을 빛낸 종목들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체전 포상 일화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펼쳐졌던 일본 도쿄를 방문하게 된다.

이들은 올림픽 개·폐막식이 펼쳐졌던 최대 규모의 경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 지난 1964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축했던 국립 요요기 경기장, 요트경기장 등을 둘러보게 된다. /뉴시스

학생중심 미래교육

식판위에 꽃 피는

내 건강 지구 건강

저탄소 채식급식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